

나이주의사전

[나이주이, 나이주의]

이 사전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나이주의를 다루었다. 또한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나이주의적인 다양한 사례들과 그 양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나이주의에 대한 정의들이 17가지나 되지만, 이들을 각각 떼어내서 읽으려 하면 안 된다. 우선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만으로는 이면의 구조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정의들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아니며, 더욱이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17가지 정의들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

* 사전 내의 용어

청소년: 0세~??세의 사람.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구분하는 연령은 법체계별로 만14세에서 24세 사이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모호하다.

비청소년: 나이가 ??세를 넘어선 사람. 장애인/비장애인처럼 청소년 중심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

꼰대: 나이주의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

1. 비청소년 간의 관계 맺는 순서, 예의를 청소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

i.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반말을 사용하거나 비청소년에게 하면 무례한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청소년을 하대하는 것

- 반가워요. 말 편히 해도 되죠?
- 공부 잘 해요?

ii. 동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호칭들(00씨, 00님)을 청소년이나 연소자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특별한 호칭들(00친구, 00이, 00군/양 등)을 사용하는 것.

- 우리 00친구는 아수나로에서 왔어요.

2. 청소년이 법률적 무능력자라는 점을 이유로 손쉽게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이를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하는 것.

- 청소년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이를 교육 목적의 체벌이라고 정당화 하는 것.
- 휴대폰 압수도 성인에게 하면 금품 갈취이다.
- 소지품 검사, 반성문 쓰기

3. 청소년이 어떤 단체의 대표이거나 스스로의 의지로 활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누군가에게 딸린 존재로 판단하는 것.

-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 누구 따라 왔니”
- “부모님은 너 이려고 다니는 거 아시니?”, “너 이러는 거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4. 청소년을 자신의 의지로 자라기보다는 부모나 교사 등에 의해 키워지는 존재,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변하는 존재로 표현하거나 취급하는 것.

- 『우리 아이 1등 만들기』와 같은 서적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방송들.

5. 청소년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 것.

- i. 청소년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 토론회 등의 행사에서 청소년에게는 사례 발표 등의 역할이 주어지고, 발제나 토론 등을 비청소년인 '청소년 전문가' 패널이 하는 경우.
- ii. 청소년 발언에 실질적인 중요도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청하는 시늉을 함으로서 건강한 의사취합구조를 가장하는 것.

6. 청소년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능력이 없거나 무책임한 존재, 미성숙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

- i.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을 져야지!”
 - * 비청소년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 ii. 청소년에게 금전 관리나 대표 등 책임 있는 역할을 맡기지 않는 경우
- iii. 아이돌 가수 콘서트 때 소속사가 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팬들에게 가하는 불합리한 규제(휴대폰 수거 등). 이것은 청소년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어 룰을 어기고 사진을 찍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한 것.
- iv. 비청소년이 지각하고 사업 핑크내는 것은 그러려니 하면서, 청소년이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이를 청소년 범주 전체의 특징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것.
- v. 청소년이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법률적으로 제한받는 것. 청소년이 사회적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
- vi. 청소년 대상의 사업들이 '청소년이 주체되는 행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비청소년이 만든 기획에 청소년은 동원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

7. 청소년 일반이 무능력하다고 전제하는 것. 그래서 능력 있는 청소년의 존재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

- i. 청소년 일반이 무능력할 것이라는 편견을 드러내는 경우
 - (상점에서 직원이) 그거 비싼 거야. 너 살 수 있어?
- ii. 애초에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그 이상의 능력을 보일 경우 쉽게 칭찬하는 경우
 - 그 나이에 벌써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기특하네!

8. 청소년기를 생물학적으로 지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청소년과 비슷한 경험을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결정, 판단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

- 나도 너만 할 때 너랑 똑같은 생각 했어. 그런데…….(훈계)
- (자퇴를 결정한 청소년에게)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한다? 학교는 제대로 나와야지.

9. 청소년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감정을 하찮게 취급하는 것.

-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냐.
- 너희 나이 때가 제일 좋은 거야.
- 네가 지금 하는 거 고생도 아냐.
- 학생일 때가 가장 편한 거야. 네가 사회 나와 보면 지금 보는 시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거야.
- 청소년이 하는 고민들을 모두 '중2병'으로 취급하고 경시하는 것.

10. 청소년을 독립적인 방어력이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생각해버리는 것.

- i. 자기 집단의 약점이나 결점처럼 여기면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
 - 우리 아이들을 지켜줍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 (집회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청소년들은 뒤로 물러나세요!!

* 이 경우 비청소년의 허세의식의 발현일 수 있음

- ii. 청소년 일반을 직접 참여하는 존재가 아닌 뒤에서 응원하는 존재로 연결시켜버리는 것.
 - “아빠, 힘내세요!”라는 로고송이 나오는 CF.

11. 청소년을 미래의 인적자원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청소년의 활동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치부하는 것.

- “꿈나무” “자라나는 민주시민” “미래의 노동자”
- “체험 학습”, “직업 체험”
- 오늘은 우리가 지키지만, 내일은 너희가 지키렴.

cf. 청소년 자치기구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 학생회를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연습하기 위한 기구로 규정하여, 학생회에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학생회의 결정을 쉽게 뒤집는 것.

12. 청소년 일반을 특정한 이미지로 고정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것.

i.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

-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을 선동한다.” : 이는 청소년에게는 정보를 선별하여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편견이 내재된 표현이다.

- 청소년 비혼모를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지탄하거나,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말아먹었다며 동정하는 경우.

cf.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해 그 운동의 순수성을 나타내려는 것. ex) 촛불소녀

ii. 상큼 발랄한 이미지.

- 비청소년이 하는 집회나 토론회에 비해 청소년이 하는 집회나 토론회에 가볍고 발랄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
- 젊은 사람들이 분위기 좀 띄워 봐~

iii. 발칙한 이미지. 저항적, 반항적인 모습. 단 귀엽게 용인되는 한 안에서만.

- 염색이 교칙으로 금지된 학교에서 방학 때 염색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

13. 나이에 따라 정해진 역할, 위치, 허용되는 지식과 정보를 달리하는 것

i. 각종 자격증,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연령제한. 국회도서관 등 공공기관 출입 제한.

ii. 청소년에게 학생의 위치만 허용하는 표현.

- “암전히 공부나 하지…….”
- ‘몇 학년이에요?’ ‘저기 학생...’ 등
- 통상적으로 학교에 있을 시간에 돌아다니는 청소년이나,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훈계하는 것.

iii. 술, 담배, 콘텐츠 등을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들에게 노래방과 피시방의 출입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멀티방등의 장소에 접근을 금지하는 것.
- 콘텐츠를 등급을 매겨 구분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성(性), 폭력 관련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격리하는 것. (19금)

14. 기성세대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변화된 문화를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혐오하는 것.

i. 청소년의 존재, 발언권이 커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

-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집회를 가지거나 기성세대에 반대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고, 무서워서 무슨 소리를 못하겠다.’ 와 같은 표현

ii. 조그만 고통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취급하는 경우.

- 요즘 애들은 이 정도로 난리라니까? ㅈㅈㅈ 우리 때는…….

15. 청소년을 분석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것.

i.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들이 아동의 행동양상을 비청소년의 시각으로 해설하고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

- 아동심리학: 아동을 단순히 발달과정에 따라 구분하고 정형화한다.

ii.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 '위기청소년': 정책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보호'와 '사회복귀(정확히는 '정상적 주기 내로 복귀')의 프레임.

16.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나이와 생물학적인 개념만으로 고정시키는 것.

i. 생물학적 비청소년을 모두 끈대로 연결 짓는 경우.

ii. 청소년이 비청소년과의 의견 차이에서 오는 논쟁을 "끈대 같다"는 말로 막아버리는 경우.

- 청소년들이 비청소년의 주장을 단순히 나이에 근거하여 권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 비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장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숙하다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17. 자신의 자식이나 동생 등을 불합리하게 간섭해도 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그 잣대를 비슷한 나이대의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

* 특히 청소년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을 '가족 같은 맘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라는 식으로 미화하는 경우, 나이주의와 가족주의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다.

- "너 만한 자식이 있다."라면서 훈계하려는 경우.

- "넌 네 부모한테도 이렇게 하니?"

참고사항

* 학교: 나이주의에 의해 견고하게 유지되고, 나이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공간. 학년 간, 선후배간, 교사-학생 간의 나이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개인의 경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발언권이나 권력이 차별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험을 절대화 하여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종종 나이주의와 결합해서 여러 차별을 만들어 낸다.